

KIA “아무나 올라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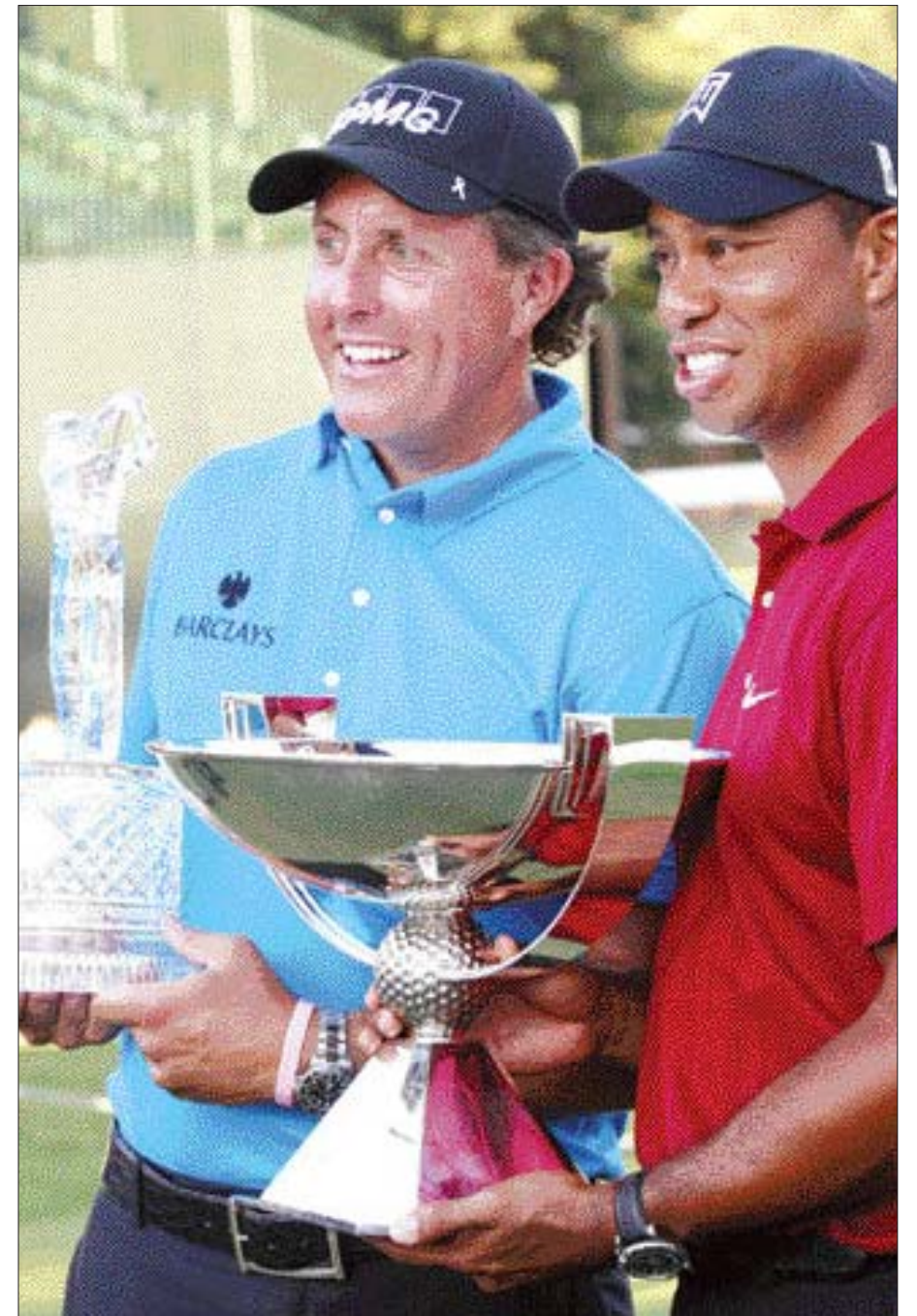
한국시리즈 대비 합동훈련 돌입 추석 휴가 반납, 단점 보완 주력

“V10”을 향한 호랑이들의 진군이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오후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합동훈련을 갖고 한국시리즈 준비에 들어갔다. 25일 하이로즈와의 홈경기를 끝으로 2009 정규시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던 선수단은 이틀간의 휴식을 끝내고 한국시리즈 체제에 돌입했다.

훈련 시작에 앞서 조범현 감독은 미팅을 갖고 선수단에게 집중과 최선을 당부했다. 조 감독은 “모든 준비과정과 플레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부담감 없이 한국시리즈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선수단 분위기를 독려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KIA 선수단은 12년만의 우승 도전을 위해 추석 휴가까지 반납했다. 연휴와 상관

없이 3일 훈련 1일 휴식 로테이션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선수단은 추석 이후 합동훈련을 갖고 전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조 감독의 한국시리즈 구상도 시작했다. 9월 엔트리가 확정되면서 31명의 선수가 최종전에 이름을 올렸지만, 포스트 시즌 엔트리가 26명으로 재조정되는 만큼 선수단 구성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조 감독은 합동훈련을 통해서 육색을 가리게 된다. 무엇보다 한국시리즈 및 그룹의 중요한 변수는 재활중인 투수 윤석민이 쥐게 될 전망이다. 조 감독은 “윤석민이 어느 정도 투구가 가능하냐에 따라서 마운드 운영의 틀이 바뀔 것이다”고 밝혔다. 감독으로서 두 번째 한국시리즈를 맞게 되는 조 감독은 또 “한국시리즈에 직행할 만큼 우승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철저한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며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를 중용하면서 포스트 시즌 경험부족이라는 단점을 채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8일(한국시간)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챔피언십 대회를 마친 후 타이거 우즈(오른쪽)와 필 미켈슨이 각각 페덱스컵 트로피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연합뉴스

우즈 1000만달러 챙겼다

페덱스컵 품에... 미켈슨은 투어 챔피언십 우승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우승을 차지했다.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이스트레이크 골프장(파70·7천154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 파 70타를 쳐 필 미켈슨(미국)에 3타 뒤진 준우승(6언더파 274타)에 그쳤다. 5언더파 65타를 몰아쳐 9언더파 271타로 우승한 미켈슨에게 한발 뒤처졌지만 우즈는 페덱스컵 최종 점수에서 4천점을 확보해 2천920점의 미켈슨을 따돌리고 페덱스컵 우승 보너스 1천만 달러의 주인공이 됐다. 페덱스컵 제도가 도입된 2007년에 이어 두번째로 1천만달러의 보너스 상금을 챙긴 우즈는 PGA투어의 절대 강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페덱스컵은 우즈가 무



준PO전쟁 기선 제압하라



두산 VS 롯데 오늘 잠실벌서 대충돌

불펜-선발 활약 여부 1차전 V 가를 듯 95년 KS후 14년만에 경부선 시리즈



〈두산 김경문 감독〉

14년 만에 펼쳐질 ‘경부선 시리즈’에 야구 팬들이 들떠 있다. 2009 프로야구 정규시즌 3위 두산 베어스와 4위 롯데 자이언츠가 29일 오후 6시 잠실구장에서 가을잔치의 서막을 여는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벌인다. 올 시즌 두 팀 상대 전적은 롯데가 10승9패로 앞서지만 막상막하나 다름없다. 맞대결에서 팀 평균자책점은 4.76(롯데)과 4.82(두산), 팀 타율은 0.279(두산)과 0.277(롯데)로 엇비슷하다. 두 팀은 1995년 한국시리즈(당시 두산은 OB) 이후 포스트시즌에서 처음 만난다. 인기 구단의 격돌인 만큼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도 많다. ◇두산의 경험-롯데의 기세=두산은 원년부터 2008년까지 포스트시즌 90경기(45승44패1무)를 치렀다. 삼성(139경기) 다음으로 많다. 반면 롯데는 54경기(27승26패1무)

에 불과하다. 늦게 창단한 SK를 빼면 8개 구단 중 경험치가 가장 적다. 특히 2001-2007년 순위인 ‘8-8-8-5-7-7’이 말해주듯 재작년까지는 가을잔치에 철저히 소외됐다. 3전 전패로 끝났지만 그나마 작년 준플레이오프 3경기가 최근 포스트시즌의 전부다. 두산은 김경문 감독이 부임한 2004 시즌부터 5년간 35번(16승17패)이나 포스트시즌 경기를 치렀다. 김 감독 지휘 아래 한국시리즈는 3승12패로 밀렸지만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는 13승5패로 강했다. 롯데는 경험 대신 기세를 믿는다. 특히 지난 12.13일과 19.20일 각각 삼성, 두산을 상대로 베팅골 4위 싸움을 벌여야 했던 두 번의 주말 2연전에서 4전 전승했다는 사실이 고무돼 있다. 페넌트레이스였지만 분위기와 압박감은 포스트시즌 못지않았다. ◇롯데 선발-두산 불펜=큰 경기일수록 ‘투수 놀음’이라면 결국 마운드의 높이가 승부를 가를 결정적 변수이다. 두 팀의 마운드 색깔은 뚜렷하다. 선발은 롯데, 불펜은 두산의 우위로 압축된다. 전통적으로 선발이 강한 롯데는 올 시즌에도 10승 투수 셋을 배출했다. 특히 조정훈(14승9패)은 ‘최고의 발전’이다. 위력적인

두산	정규시즌 성적	롯데
9승10패	승패	10승9패
5.5/5.2	평균자책점/실점	5.2/5.5
0.279	타율	0.277
4.82	평균자책점	4.76
25	훈련	16
14	도루	13
15	실책	11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일정			
1차전	9월 29일(화) 오후 6시	잠실	
2차전	9월 30일(수) 오후 6시	잠실	
3차전	10월 2일(금) 오후 1시30분	사직	
4차전	10월 3일(토) 오후 2시	사직	
5차전	10월 5일(월) 오후 6시	잠실	

※5전3선승제 4, 5차전은 필요할 경우

포크볼을 장착해 탈삼진 2위(175개)에 올랐다. 하지만 두산을 상대로는 1승밖에 없다. 왼팔 에이스 장원준이 두산을 맞아 3승1패, 평균자책점 3.08로 더 강했다. 송승준은 3승을 올렸지만 평균자책점이 7점대에 이르고 홈런을 7개나 얻어맞았다. 결국 롯데는 원투펀치로 나설 조정훈, 장



〈롯데 로이스터 감독〉

원준이 최대한 길게 끌어주고 임경완, 이정훈, 존 애킨스로 이어지는 계투조에 뒷문을 맡기는 승리 공식을 머릿속에 그린다. 반면 두산은 흥상삼을 빼면 롯데에 그다지 강한 선발투수가 없다. 흥상삼은 시즌 9승 중 롯데를 상대로만 4승을 챙긴 ‘거인 킬러’다. 그러나 후반기 구위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그렇다면 두산은 고창성-임태훈-이재우-이용찬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KILL 라인’에 기밀 수밖에 없다. 시즌 중에도 그랬던 것처럼 선발이 불안하면 5회 이전은 물론 초반이라도 언제든 불펜이 가동될 수 있다. 임태훈과 고창성의 롯데 상대 평균자책점이 각각 3.24와 1.46으로 관용은 편이고 이용찬도 3이닝 밖에 던지지 않았지만 롯데에 점수를 빼앗기지 않았다. /연합뉴스

양키스 3년만에 AL 동부지구 우승

내달 17일 플레이오프 1차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뉴욕 양키스가 3년 만에 아메리칸리그(AL)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하며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 양키스는 2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뉴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경기에서 4-2로 역전승을 거두며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1위를 확정했다. 이로써 양키스(100승56패)는 2위 보스턴(91승64패)과 승차를 8.5경기로 벌려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정상에 올랐다. 양키스가 동부지구 정상에 오른 것은

2006년 이후 3년만이다. 양키스는 1-2로 뒤지던 6회말 마쓰이 히데키가 2타점 우전 적시타를 치면서 경기를 뒤집었고 8회에는 마크 테세이라의 솔로 홈런으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양키스 선발 투수인 앤디 페티트는 6이닝을 7안타 2실점으로 막아 시즌 14승(7패)째를 거뒀다. 2000년 마지막으로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양키스는 지난 시즌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3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했다. 아메리칸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은 다음달 17일 양키스 홈구장인 뉴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추신수 숨고르기

볼티모어전 4타수 무안타

최근 3경기에서 홈런 2개를 뽑아낸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방망이가 잠시 숨을 골랐다. 추신수는 28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펼쳐진 미국 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홈경기에서 5차례 타석에 들어섰으나 몸에 맞는 공으로 한 차례 출루했을 뿐 안타를 치지 못했다. 4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한 추신수는 1회초 무사 2루 기회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2회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한 추신수는 4회 또 삼진을 당하며 득점 기회를 날렸다. 무사 1, 2루 볼카운트 2-2에서 상대 투수 브라이언 베이스의 커브볼을 헛스윙했다. 클리블랜드는 9-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미국 2연패 달성

야구월드컵 결승 쿠바 꺾어

미국 야구가 아마추어 최강 쿠바를 꺾고 제38회 야구월드컵 2연패를 달성했다. 미국은 28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네투노에서 벌어진 대회 결승전에서 투카스 메이의 3점홈런 등 장단 9안타를 적시에 몰아쳐 쿠바를 10-5로 물리쳤다. 이로써 미국은 2007년 대만 월드컵에 이어 2회 연속 정상에 오른 반면 쿠바는 26회 대회부터 36회 대회까지 9연패를 달성한 뒤 두번 연속 준우승에 머물렀다. 승부는 7회초에 갈렸다. 미국은 4-4로 맞선 7회초 2사 뒤 상대 실책속에 타자 일순하며 집중 6안타로 6점을 뽑아 10-4로 달아나며 승부를 갈랐다. /연합뉴스

구스타프손 6년만에 우승 감격

LPGA 챌린지 양희영·유선영 공동 3위

소피 구스타프손(스웨덴·사진)이 6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구스타프손은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덴빌 블랙호크 골프장(파72·6천212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CVS/파머시 LPGA 챌린지에서 함께 19언더파 269타로 2위에 3타차 우승을 차지했다. 구스타프손은 2003년 삼성월드챔피언십 이후 6년 만에 통산 5번째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공동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에 나선 구스타프손은 5번 홀(파5)에서 이글을 뽑아내는 등 이글 한 개와 버디 4개, 보기 3개로 3타를 줄였다. 오초아는 버디 3개와 보기 3개로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2위로 처졌다. 한국 선수의 투어 대회 3연승은 좌절됐다



소피 구스타프손

만 양희영(20·삼성전자)과 유선영(23·휴온스)이 공동 3위(14언더파 274타)에 올라 체면을 세웠다. 양희영은 이날 버디 7개를 잡아내며 6언더파 66타를 뽑아내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또 유선영도 15번 홀부터 17번 홀까지 3홀 연속 버디를 낚는 등 4타를 줄이면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재미교포 김초롱(25)은 공동 9위(합계 11언더파 277타), 한국계 미국인 비키 허스트(19·캘러웨이)는 공동 13위(합계 10언더파 278타)로 경기를 마쳤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김민경(21·하나금융)은 공동 24위(합계 5언더파 283타)에 그쳤다. /연합뉴스